

보도시점 2026. 9. 9.(수) 14:00 배포 2026. 9. 9.(수)

버려진 경찰제복에 새 삶을 선물하다… 경찰제복 순환이용 시범사업 추진

- 폐경찰제복, 민관 협력으로 의류·건축자재 등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 공공 최초의 단체복 재활용·재활용체계 구축으로 의류 순환이용의 발판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9일 오후 경찰청 본청(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경찰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지속가능섬유의류연합, 비와이엔(BYN)블랙야크, 케이투세이프티코리아와 함께 ‘경찰제복 순환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류는 폴리에스터, 면 등 소재가 다양하고, 지퍼 및 단추와 같은 여러 부자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재활용되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의류가 재활용되는 비율은 1%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 ‘Sustainability and Circularity in the Textile Value Chain’, 유엔환경계획(UNEP), 2023

그러나 단체복은 재질이 균일하고 수량이 많으며, 수거가 쉬워서 일반 의류에 비해 재활용에 유리하다. 특히 경찰제복은 내구성이 높은 고품질 기능성 섬유로 제조되므로, 재활용(업사이클)은 물론 물리·화학적 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순환이용될 수 있다.

매년 약 300톤의 폐경찰제복이 소각되어 왔다. 올해 10년만에 경찰제복 디자인이 개편되며 폐경찰제복이 대량 발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폐경찰제복을 기존과 같이 소각하지 않고 순환이용하여 의류 재활용의 첫걸음을 떼는다.

* 외근점퍼 및 조끼 등 향후 2년간 본청·소속기관 직원 13만명분 물량 발생 추정

우선, 폐경찰제복은 재활용되어 가방, 지갑, 인형으로 거듭날 수 있다. 재단, 봉제 등 수작업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사용한 경찰제복의 종류에 따라 색다른 디자인의 제품이 탄생한다.

폐경찰제복은 물리적으로 재활용될 수도 있다. 경찰제복을 파쇄, 절단하고, 타면(打棉)하면 솜 형태의 단섬유를 회수할 수 있다. 단섬유를 정렬하고 꼬아 실을 뽑고, 실을 가로·세로로 엮어 원단을 만들면 장갑, 목도리 등 섬유제품으로 재탄생한다. 폐의류 재질 특성상 실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솜에 압력을 가해 건축자재, 가구 등을 생산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폐경찰제복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면 새로운 석유화학제품(의류 등)을 제조할 수 있다. 혼방섬유 속 폴리에스터만을 분자로 분해한 후 다시 연결하여 폴리에스터 사슬로 합성하는 방식이다. 화학적 재활용 원료는 플라스틱 신재(新材)를 대체하여 자원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재활용·재활용이 가능한 경찰제복 품목*을 전국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등에 알려 분리배출한 후 각 시도 경찰청으로 모아 전처리업체로 운반한다.

*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퍼(봄가을, 겨울), 흑한파카, 야광조끼

전처리업체는 경찰복에서 지퍼·단추 등 부자재를 제거하며, 소재별로 경찰복을 해체한 후 재활용업체에 공급한다. 재활용업체가 요구하는 경찰복 품목은 별도로 분리하였다가 재활용업체로 공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분리배출된 경찰복이 바로 재활용·재활용업체로 운반되기 어려울 경우, 비축창고에 보관했다가 업체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하여 수급을 조절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전처리업체의 작업물량과 재활용·재활용업체의 수요를 연계한다.

아울러 재활용량·폐기량 등 통계를 수집하는 등 실무 전반을 관리하며, 원활한 시범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생실 사용이 가능한 의류·제조업체를 발굴하여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한국지속가능섬유의류연합은 의류 전처리·재활용·재활용 사업자단체로 의류를 소각이나 수출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순환이용한다. 비와이엔(BYN)블랙야크, 케이투세이프티코리아는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재생실로 의류 최종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판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대상 폐경찰제복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찰청은 경찰제복 재활용·재활용 제품의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 환경성, 경제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 최초의 의류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것으로 재활용·재활용을 통해 의류에 새 삶을 선물하는 첫걸음”이라며, “경찰제복에서 시작된 의류 순환이용 체계가 여러 단체복과 일상에서 입는 옷들로 확산되는 순환경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상징하는 경찰제복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사회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 조직도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
3. 경찰제복 순환이용 시범사업 개요.
4. 경찰제복 순환이용 시범사업 흐름도.
5. 겨울점퍼 재활용 방식(예시).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전원혁	(044-201-7380)
		사무관	정민경	(044-201-7386)
담당 부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장비운영과	과장	류경숙	(02-3150-2036)
		계장	이용희	(02-3150-2135)



□ 행사 개요

- (일시) 9월 9일 14:00
- (장소) 경찰청(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 (참여) 기후부장관, 경찰청장代, 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지속가능섬유의류연합 의장, 블랙야크 회장, 케이투세이프티 전무
- (주요내용) 단체복 재활용 시범사업을 통한 의류 순환이용 기반 마련

< 기관별 역할 >

- (기후부) △기획·총괄,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조율, △재활용품 수요 발굴 등
- (경찰청) △수거·운반, △교체시기·물량·재질정보 제공, △재활용품 구매 등
- (한국환경공단) △경찰복 비축, △제도·법률 지원 등
- (유통지원센터) △실무 총괄, △재활용업체 지원·관리, △신규 재활용업체 검증 등
- (포장재공제조합) △재생원료 순환이용 지원, △재활용제품 판로 개척 지원 등
- (섬유의류연합) △전처리(소재별 해체 및 부자재 제거), △재활용재활용 제품 제작·납품
- (패션기업) △재활용 의류 생산 및 판매 등

□ 세부 일정

시간		행사 내용	비고
14:15 ~ 14:25	'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어울림마당(1층)
14:25 ~ 14:37	'12	▶ 인사 말씀	협약 참여기관 8개
14:37 ~ 14:46	'9	▶ 시범사업 소개	-
14:46 ~ 14:55	'9	▶ 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	-
14:55 ~ 15:10	'15	▶ 재활용 제품 전시 관람	1층 로비

「경찰제복 순환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찰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지속가능섬유의류연합, (주)BYN블랙야크, 케이투세이프티(이하 “협약당사자”)는 경찰제복의 지속가능한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경찰제복의 재활용 및 재사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류 순환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협약기관은 상기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① 본 사업 전반 총괄 및 각 기관 간 협력 조율
 - ② 재활용·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노력 및 수요처 발굴
2. 경찰청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① 경찰제복 교체 시기 물량, 재질 등 정보 제공
 - ② 경찰제복 수거 후 전처리업체 또는 비축창고로 운반
 - ③ 재활용·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노력 및 수요처 발굴
3. 한국환경공단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① 경찰제복의 전처리업체 인계에 필요한 비축창고 운영
 - ② 의류 재활용 관련 법·행정적 지원
4.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① 실무 전반 총괄 및 원활한 사업 수행 지원
 - ② 신규 참여업체 발굴, 기술 및 제품 검증 등
5.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① 경찰제복 재생원료 순환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원
 - ② 재생원료 활용 의사가 있는 의류 제조업체 발굴 및 판로개척 지원
6. 한국지속가능섬유의류연합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① 경찰제복 전처리·재활용·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및 최종제품 제작·판매
 - ② 관계기관에 전처리·재활용·재활용량 및 폐기량 보고
 - ③ 경찰제복의 유통 금지 관련 법규 준수

7. (주)BYN블랙야크, 케이투세이프티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① 경찰제복 재생원료를 활용한 의류 최종제품 생산
- ② 생산제품의 유통·판매·홍보 등

제3조(제도개선) 협약당사자는 사업 운영 현황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총괄기관으로서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성과확산) 협약당사자는 시범사업의 결과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협력한다.

제5조(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서면을 통해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8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경찰청

청장
김종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문갑생



KOSTEA

의장
차승수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조문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김동진



회장
강태선



전무
윤희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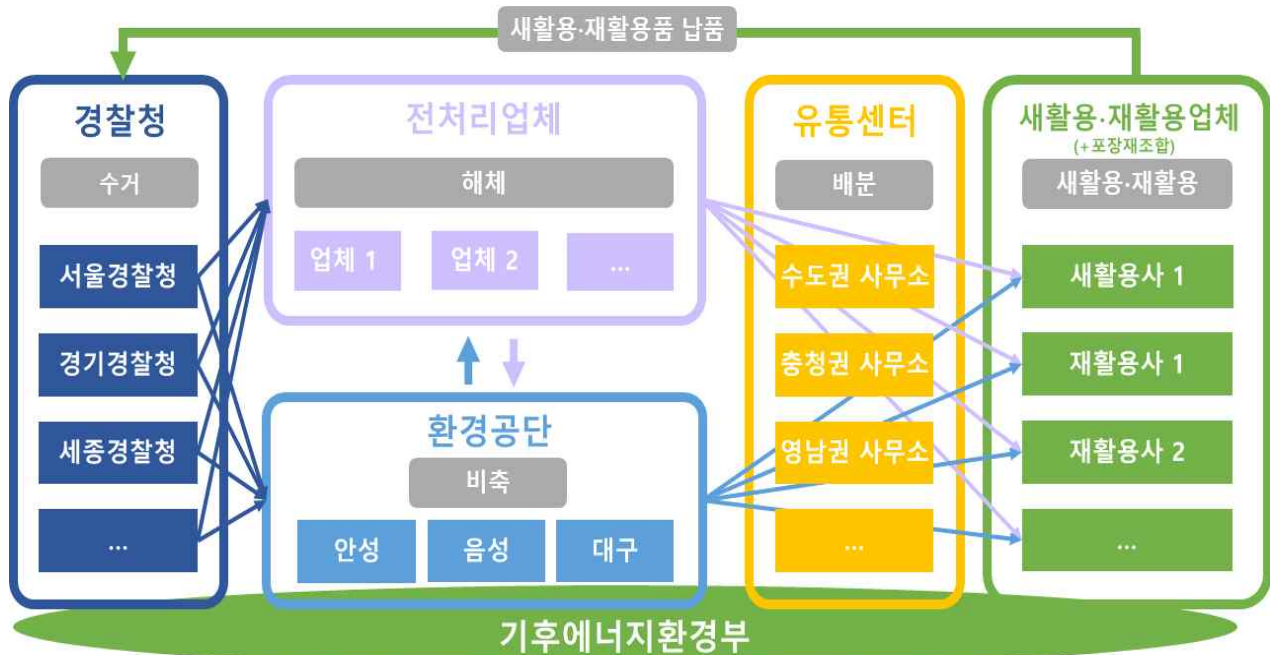
1. 추진배경

- 디자인 교체('26~)로 대량폐기* 예정인 경찰제복을 재활용하여 단체복 (소방복, 교복 등) 순환이용 모델 구축 및 일반의류 재활용의 초석 마련

* 향후 2년간 본청·소속기관 13만명 물량 발생 추정

※ 단체복은 △균일한 재질, △단순한 수거체계, △대량 발생 등으로 인해 재활용에 유리

2. 시범사업 체계 개요



1. (경찰청) △경찰제복 분리배출* 및 운반(경찰청→전처리업체 또는 비축창고), △새활용·재활용제품 우선구매**

* 새활용재활용가능 품목 6종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퍼(봄가을, 겨울), 흑한기파카, 형광조끼)

※ 서울경기남부청 상시발생물량 우선('26.6~), 그외 디자인 교체로 인한 폐기물량 및 상시발생물량('26.10~)

** 장갑, 넥워머 등 경찰 보급품 및 티셔츠 등 기념품

- 지방 파출소·지구대(2,047개소) → 경찰서(261개소) → 경찰청(18개소) → 전처리업체(수원 업클로스, 울산 우시산) 또는 환경공단 비축창고*

* 양주, 안성, 음성, 청주, 대구, 정읍(총 6개)

② (전처리업체) ①보안요소(명찰, 마크 등) 및 ②부자재 제거(지퍼·단추 등), ③품목별 분류 및 소재별 해체, ④재활용·재활용업체로 운반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인건비 절감 가능

* 업클로스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채용 / 우시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용

○ 보안물품 폐기·자료보관, 지퍼·단추 폐기, 자투리및해체물품 재활용·재활용업체 공급

③ (재활용·재활용업체) 재활용·재활용품 제작 및 공공*·민간판매

* 기후부 산하·소속기관, 경찰청, 기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 (재활용) 에코백, 파우치 등, (재활용) 의류(양말, 셔츠 등) 건축자재, 자동차 내장재 등

④ (유통지원센터) △참여업체 대상 물량배분, △재활용량·폐기량 등 통계 관리, △신규 참여업체 발굴, △인건비·운반비 등 시범사업 소요비용 지원

⑤ (포장재조합) △조합 회원사 중 재생실 사용 의사가 있는 패션기업 발굴, 패션기업 및 기후부 간 의견 조율, △시범사업 참여 독려

⑥ (환경공단) 적재공간 부족 등 전처리업체로 경찰제복 운반이 어려울 경우, 비축창고에 경찰제복 보관 → 업체 요청시 공급

* 양주, 안성, 음성, 청주, 대구, 정읍(총 6개)

⑦ (기후부) △전과정 조율, △순환자원 인정, △재활용품 추가 수요처 발굴

○ 폐경찰제복을 순환자원*으로 인정('26.4) → 운반 및 재활용 용이성 제고

* 환경성, 경제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

○ 기후부 산하·소속 기관 등 공공 및 민간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활용 제품 판로 확대

경찰제복 시범사업 흐름도

01

분리배출



02

수거·운반



03

전처리



① 원제품



② 부자재 제거



부자재 폐기

③ 소재별 해체



04

새활용·재활용



05

제품구매



